

전 남

“음악으로 학교폭력 예방합니다”

여수교육청 초·중 8곳 오케스트라 창단 준비 한창

음악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한 미국 할렘가 아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감성교육이 여수 초·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실현된다.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재익)은 2012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단 8곳을 창단기로 결정,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13일 여수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2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및 종합예술교육 선도교육 지원청으로 선정됐다. 종합예술 선도교육 지원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예술

적 능력 향상과 인성 함양 등 감성교육의 확대와 교육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가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매년 선정한다. 여수교육청은 전국 12개 지원청 중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시상금 5000만원과 지속적인 감성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여수교육청은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8곳(초7·중1)의 오케스트라단 운영학교를 선정하고, 현재 창단준비에 한창이다. 이로써 여수지역내 초·중 학교 오케스트라단은 기존 4곳(초 2·중 2)을 포함해 총 13곳에서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케스트라단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6년간 지원할 3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12억원을 올해 각 학교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교육청은 수준높은 오케스트라단 육성을 위해 시 교향악단과 관련 대학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강사 공동운영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정착시켜 음악교육의 질 또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감성교육의 연계와 지속화를 위해 오케스트라단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 합창단과 교육연극부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교육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화예술계 등 지역 사회와의 연결프로그램을 마련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여천 초등학교 장영희 교장은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돼 온 아이들이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기쁘다”며 “오케스트라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이 풍부해지고 아름답게 자라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고 말했다. 장재익 교육장은 “오케스트라단 활동 등 감성교육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창시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일선학교가 하나 돼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kim@



“친환경·고품질쌀 만들겠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지난 12일 광주·전남 지역농협리더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쌀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결의를 다졌다. 이번 결의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협의 역할을 재고하고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해물탕의 감초’ 순천만 가리맛조개 日 수출길

용두어촌계 5월까지 72t...7억 여가소득



‘해물탕의 감초’라 불릴 만큼 맛과 일품인 순천만의 가리맛조개(사진)가 입맛이 까다로운 일본시장에 진출, 어업인의 새 소득자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3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일의 염습지인 순천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산물인 가리맛조개의 본격적인 수출길을 맞아 일본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4일 빠른 지난 7일 0.7t을 처음으로 수출,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된 것을 비롯해 5월 중순까지 70여만 7억원 상당을 수출할 예정이다. 가리맛조개는 양질의 껍질을 보

유한 순천 노월·마산·용두어촌계에서 주로 생산되며 용두어촌계가 생산량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게 된 것이다. 용두어촌계는 지난해에도 72t을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kg당 8500원선에 거래됐으나 올해는 kg당 9500원의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져 어촌계의 소득원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소장은 “순천만 일원에 가리맛조개 양식장 적지를 확보하고 인공종묘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10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00만마리의 종묘를 살포했다”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지역 특화품

목으로 적극 육성하는 한편 순천만 습지와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생태체험 관광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리맛조개는 진흙겉벌 1m 저층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이매패’(2장의 패각을 갖춘 연체동물)로, 4~6월이 제철이며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억제하고 간의 해독 기능이 탁월하다. /장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순천만의 봄’ 노래해요

순천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2일 문예회관



순천 시립합창단 제59회 정기연주회 ‘순천만의 봄’ 공연이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순천만을 주제로 한 시를 작곡한 응모작품 중 선정된 창작곡 ‘순천만을 걸으며’ ‘순천만 이야기’ 등 4곡이 연주된다. 또 작곡가 오병희씨가 극동방송 윤학민 코랄과 호른니스트인 남편을 위해 작곡한 ‘호른 매스(Horn Mass)’가 새롭게 선보여 한국적·재즈적·교회음악적인 색채와 더불어 호른의 따뜻한 울림과 조화되는 혼성합창의 묘미를 느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새봄을 맞아 아름다운 화음과 함께 순천만을

여행하는 연주회가 되길 바라며 호른과 조화되는 합창의 새로운 묘미를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 시립합창단은 지난 1985년 9월 창단 이래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합창을 통해 최고의 감동을 전하고 있다. 시립합창단은 올해 선해학교 장애우 초청연주회(4월)를 비롯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초청 공연(5월) ▲순천만 합창페스티벌(6월) ▲정원박람회 테마공연(7월) ▲정원박람회 창작음악회(9월) 등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예정일기자 yjj@

담양군 ‘송순 문학상’ 제정...첫 공모전

조선시대 대표 문인인 면양정 송순(1493~1583)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문학상이 제정됐다. 담양군은 4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1회 담양 송순 문학상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시(시조)·소설·아동문학(동시·동화)·희곡·수필이며, 국내 작가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발간한 작품으로 다른 문학상에서 수상한 적이 없어야 한다. 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문순태)는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 중 당선작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가사문학관에서 열리는 ‘전국 가사문학제’ 기간중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상에는 2000만원, 우수상 2명에는 500만원이 주어진다. 작품은 문학상 운영위원회(담양군청 문화체육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061-380-2801) 한편 담양 출신인 송순 선생은 조선 중기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로 ‘면양정가’를 비롯한 시조와 한시 등을 남겼으며 송강 정철 등 당대 문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화순군 ‘한천농악’ 후계자 양성 추진

화순군이 동북면 ‘한천농악’ 후계자 양성에 발 벗고 나섰다. 화순군은 지난 1979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한천농악’을 활성화하고 소중한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하기 위해 ‘한천농악 후계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동북면민들을 대상으로 한천농악 교육생 20여명을 모집, 1월부터 장구·태평소·꽁과리·상모 등 4개 분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생은 초등학교 2학년생

부터 76세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천농악단에서 활동 중인 박춘백·노문대씨가 각각 장구·상모 및 꽁과리를 강의하고 있으며, 태평소는 외래강사를 초빙해 주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농악기별로 울림·장단 등 기본기를 익히고 이어 교육생 전체가 함께 모여 한천농악을 집중 연습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전남 농어촌 지하수 자원관리 박차

올 6억 투입 합평·진도·신안 3개 지구 조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촌 지하수 자원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용수구역의 지하수 현황을 조사 분석해 용수이용 및 오염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국 352개 농촌용수구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자원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부족 현상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

함에 따라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지하수 환경을 조사한다. 공사는 그동안 사업비 1076억원을 투입해 161개 지구 조사를 완료했고, 올해에는 전국 16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남지역본부는 관리조사 대상구역 60개지구 가운데 지금까지 38억원을 들여 19개지구를 조사 완료했다. 올해는 6억원을 들여 합평군과 진

도군, 신안군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구역별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사는 자료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완료된 지구의 지하수 현황관리와 기초자료를 ‘농어촌 지하수넷’(www.groundwater.or.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김행운 전남지역본부장은 “정확한 지하수 이용실태 파악과 수질분석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 이용량은 우리나라 수자원 총이용량(337억m³/년) 가운데 11%(37억8000만m³/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용과 생활용으로 쓰인다. /송기통기자 song@

공연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ircusfestival.co.kr) ■ 온라인 예매 : 티켓링크 http://www.ticketlink.co.kr 문의처 : 1588-7890

세계 유명 서커스팀들의 화려한 판타지 달인 김병만이 아시아 최대의 아트서커스가 펼쳐지는 광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간 2012. 5. 12(토) ~ 8. 12(일) 93일간
장소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뒤편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번지 커뮤니티센터 8F
TEL.061-797-3818, FAX.061-795-9653

주제 문화와 자연, 산업이 함께하는 빛과 에너지의 축제
주최 광양시 주관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MBC 미술센터

2012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홍보대사 김병만